

# 산수유나무 (1)

산수유 나무는 농, 산촌의 소득증대사업의 하나로 권장되고 있는 유실수 재배에 있어 그 재배 전망이 유망시 되고 있는 수종으로 일부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에 종도화된 수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국내수요는 물론이고 외국 수출전망이 크게 호조를 보이고 있으므로 식용 유실수보다는 약용 유실수로서 소득면에 기여하는 바 클 것으로 기대되어 본 고에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산수유 나무는 낙엽 교목으로 꽃이 봄 일찍 피기 때문에 생화나 화목(花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또 그 수형과 잎이 좋아 정원수로 재배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집단 재배를 통하여 그 열매인 핵과는 성숙하며는 채취하여 씨를 빼내고 그 과육을 말려서 약용으로 사용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수한 일부지방에 식재되어 그 지방의 주산지를 이루고 있으나 기후 풍토에 크게 제약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재배권장 될만한 유실수라고 생각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생산량은 증가추세이기는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국내수요와 특히 일본 미국을 위시하여 동남아 제국에 많은 양이 수출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약재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 나무의 꽃을 타서 묘목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최근 몇 년간은 묘목수출이 급격하여 이

에 대한 양묘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년 발아가 잘 되지않아 묘목 수급에 많은 차질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다.

따라서 당년 발아가 어려운 반면 이에 대한 양묘법을 좀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양묘법을 중심으로 간단한 나무의 성상을 소개하고, 수확과 경제성은 다음호로 미루기로 한다.

## 나무의 성상과 분포

산수유나무(*cornus officinalis sieb et zucc*)는 층층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교목으로서 수고가 4~7m에 달하는 나무로 직경도 30cm에 달하고 수명이 길어 100년생에서도 많은 량의 열매를 생산하고 있다.

잎과 가지는 서로 마주 붙은 대생을 이루고 잎은 타원형이나 끝이 뾰족하고 그 표면은 윤기가 나서 보기에 상쾌감을 준다.

꽃은 잎이 나기전인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에 피는데 한곳에 20~30개가 군상으로 황백색의 꽃이 된다.

열매는 여름에는 푸르다가 가을철에 가면 성숙하여 땅콩크기로 붉게 되어 그 모양 또한 아름답다.

산수유나무는 원래 중국 원산이나 우리나라에는 중부이남의 각 지역에 집단재배 되고 있는 곳이 많아 그 중 강원도의 대화, 진부 경

기도의 양평, 여주, 이천 전북의 남원, 무주 전남의 구례, 경북의 봉화, 상주, 월성, 경남의 하동 등지가 유명하며 그 외 지역에서도 한 두 그루씩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있는 곳이 많다.

## 양 묘

산수유나무의 양묘는 종자파종에 의한다.

그러나 종피에는 많은 유세포(油細胞)가 형성되어 있어 발아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파종하기 전에 충분한 종자처리를 하여야 발아가 일정하다.

### 1) 종자의 준비와 처리

종자는 10월 중, 하순경에 완숙한 종자를 채취하여 약용으로 쓰이는 과육을 제거한 후 발아촉진을 실시한다.

발아 촉진법으로는 노천매장, 농유산처리, 갯물처리 온상매장 등 여러 방법 등이 있으나 당년 발아를 위하여는 농유산처리법, 온상매장 및 갯물처리법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발아율과 발아세가 일정하지 못하여 처리시 유의를 요한다.

종자의 발아촉진에 앞서 유의하여야 할 일은 약용으로 쓰이는 과육을 제거할 때 쉽게하

기 위하여 완숙된 종자를 솔에 찌는 일이 있는데 종자용으로 사용할 산수유는 솔에 찌면 발아력을 상실하게 됨으로 솔에 찌지 않는 것을 채택하여야 한다.

과피에 붙어 있는 wax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농유산처리법이 있다.

농유산에 2시간 침지하고 지베테린산 200 ppm 용액에 24시간 적셨다가 3개월간 노천매장하는 법이 있다하나 좋은 성과는 올리지 못하는 것 같다.

갯물처리법으로는 종자채종후 물 10l와 나무재 3l를 혼합하여 끓인 갯물 75°C에 5분간 담갔다가 다시 70°C에 5분간 처리하고 습한 모래와 섞어 노천매장하는 법이다.

다음 온상매장법은 온상내에 매장하면 발아가 촉진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3가지 방법은 어느 것이나 확실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산수유 종자 매장법은 채종후 만 1년에 발아되기는 하지만 노천매장에 의함이 안전하다.

노천매장은 과육을 제거한 종자를 2배의 가운 모래와 섞어 지하 30cm정도에 묻어두는 것인데 가을에 채취한 종자를 다음해 봄에 파종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1년 후인 봄에 파종하면 좋다.

종자의 표준 품질표는 다음과 같다

순량율(%)	용적중(g/l)	실중(g)	알 수		발아율 %	효 율(%)
			1l(개)	1kg(개)		
97.2	530.58	2,058	2,581	4,871	65.9	64.1

### 2) 파 종

묘포는 서늘한 산록지로서 약간의 경사지가 좋다.

포장은 관배수가 용이한 사질양토로서 파종하기 전에 충분한 기비를 넣어야 좋는데 그 기준은 m<sup>2</sup>당 요소 30gr 중과석 30gr 염화加里 15g 퇴비 2kg와 헬타크를 5g을 고루 뿌리고

밭을 갈아엎는다.

파종상은 상상으로서 폭 1m 길이 10m 상과 상의 간격은 40~50cm로서 정지한다.

작상이 끝나면 종자를 파종하는데 파종은 산파를 해도 무관하나 주로 조파(條播)를 하게 되는데 묘판을 10cm 간격으로 골을 파고 m<sup>2</sup>당 종자를 0.3~0.4l를 고루 뿌린 다음 1.5~2cm 두께로 흙을 덮고 짚을 덮어 건조를 방지한다.

파종시 주의할 일은 노천매장으로 1년간 매장한 종자는 파종전에 발아되기 쉬우므로 노천 매장한 곳을 파종전에 자주 살펴봐서 파종에 늦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파종된 종자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대부분의 종자가 발아를 완료한다.

전기한 품질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아율이 약 65% 임으로 0.4l를 m<sup>2</sup>당에 파종했을 경우 약 600개의 종자가 발아하는 결과가 됨으로 이와 같은 비율로 발아가 될 때에는 생립밀도가 높아짐으로 성장과정에서 파종상의 제초와 더불어 수회에 걸쳐 m<sup>2</sup>당 100본정도로 남겨두어 전전한 묘목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다.

시비는 가급적 6월 중순 이전에 m<sup>2</sup>당 요소 15gr를 수회에 나누어 시비토록 하여야 늦게 도장을 하지 않는다.

시비는 맑은 날씨의 한낮에 하도록 한다.

이렇게 자란 1년생 묘목은 가을철 낙엽 후에 굴취하여 품질별로 선묘하여 깊게 가식을 하여 묘목의 서릿발이나 풍해를 방지한다.

가식한 묘목은 품질이 좋은 것은 1년생으로 산지에 식재하고 품질이 낮은 것은 포장에 다시 이식하여 2년생으로 산지식재를 하게 된다.

산수유나무는 묘목의 뿌리가 약하고 좋은 형질이 되지 못하므로 대부분 봄에 이식상에서 키우게 된다.

이때에도 상상으로 상을 고르고 m<sup>2</sup>당 49본의 비율로 2년생 묘를 양성한다.

## 식 재

### 1) 적 지

전기한 산수유나무의 우리나라 분포상황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기후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재배가능하나 토질은 비옥한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양호한 곳이 알맞다.

### 2) 식 재 본 수

식재본수는 입지조건과 경영방법 등에 따라 다르나 비옥한 곳에서는 정보당 400본(5×

5m)을 기준으로 하여 식재본수를 결정하고 경사가 지고 척박한 곳에 있어서는 600본(4×4m)입상으로 한다.

집약경영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400본 이상, 조방적인 재배를 할 때보다 600본 이상을 식재함이 유리하다.

### 3) 식 재 시 기

춘식과 추식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나 해빙과 더불어 봄 일찍 식재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의 기온상태가 따뜻한 온대 남부이남 지역에서는 가을철 식재도 가능하나 온대 중부 즉, 충청도 이북지방에서는 춘식을 함이 유리하다.

이 지방에서 가을철 식재를 하면 겨울철의 서릿발 피해와 한, 풍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봄에 식재함이 유리한 것이다.

### 4) 나 무 심 기

밭과 같이 심을 곳이 숙전(熟田)이 아닌 곳에 심을 때에는 가급적 심을 구덩이를 크게 파서 내부의 흙을 뒤집어 놓을 필요가 있다.

보통 구덩이는 넓이를 60cm, 깊이를 90cm의 크기로 파고 한 구덩이당 퇴비 4~10kg 복합비료 50g씩을 흙과 섞어가면서 메꾼다.

나무는 뿌리에 비료가 직접 닿지 않도록 식재한다.

이때에 주위의 지피물이 구덩이 내부에 섞여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과 뿌리는 자연상태로 잘 퍼지도록 하면서 식재한다.

구덩이는 식재 후에 가라 앉을 우려가 있으므로 흙을 넣고 충분히 밟아 주도록 하고 심은 후에는 지피물로 덮어서 건조를 피하고 내부수분의 토양내 이동을 자유스럽게 식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산수유는 유묘시 뿌리가 약하므로 특히 봄 식재시에는 건조회기 쉬우므로 거적으로 싸서 운반중 건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